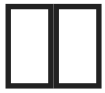
Fanfare for the Common Man

- □□





곡명: Fanfare for the Common Man

작곡가: Aaron Copland (1900–1990)

작곡 시기: 1942년 11월 6일 완성

초연: 1943년 3월 12일,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 Eugene Goossens 지휘

장르: 금관과 타악을 위한 단악장 팡파르

편성: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큰북, 탐탐

범위: 독립 팡파르 전곡과 제 3교향곡 피날레에서 재사용된 재료의 관계

IMSLP 악보와 자료 · Wikipedia 개요

Aaron Copland의 Fanfare for the Common Man은 금관과 타악만으로 이루어진 단악장 작품이다. Eugene Goossens가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작곡가들에게 의뢰한 팡파르 프로젝트를 위해 쓰였으며, 1943년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의 초연으로 독립 레퍼토리에 들어갔다. 독립 팡파르 전곡의 진행과 Copland가 1944–1946년 제 3교향곡 피날레에서 같은 재료를 새 맥락으로 사용한 방식이 함께 연결된다.

출판 정보와 자료

Copland는 1942년 11월 6일 Oakland에서 악보를 완성했다. Library of Congress는 이 원고 자료와 1944 년 출판 기록을 함께 제시하며, Boosey & Hawkes는 현재 작품 악보와 편성 정보를 제공한다. Copland 공식 카탈로그의 작품번호는 ARCO 51이다.

이 팡파르는 1944–1946년에 쓰인 Symphony No. 3의 피날레에서 다시 등장한다. 교향곡 피날레에서는 독립 팡파르의 재료에 새 도입과 세부 변화를 더해 전관현악의 문맥으로 재구성했다 . 두 악보를 함께 보면 같은 핵심 재료가 전쟁기의 독립 헌사와 교향곡의 종결부라는 서로 다른 범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요 시간

Aaron Copland 공식 작품 페이지는 약 2분으로 안내한다. 공연기관 자료는 잔향과 호흡, 템포에 따라 약 3분 안팎 또는 3분 30초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전곡은 판본과 공연 조건에 따라 약 2–4분 범위에서 지속된다.

편성

편성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큰북, 탐탐이다. 목관과 현악은 포함되지 않는다. Library of Congress 원고 자료와 Boosey & Hawkes의 출판 정보는 트롬본 3대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Copland 공식 분석 글에 보이는 트롬본 2대 표기는 이 큰 틀과 다른 자료 집계다. 기본 목록은 Library of Congress 원고 자료와 Boosey & Hawkes 판본에 근거한다.

전쟁기 위촉과 제목의 배경

Cincinnati Symphony의 음악감독 Eugene Goossens는 1942–1943년 시즌에 미국 작곡가들에게 짧은
애국적 팡파르를 의뢰했다. Copland 공식 해설은 Goossens가 18명의 작곡가에게 요청했다고 기록하며, 이 의뢰가 전시의 공적 언어를 여러 방식으로 다룬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한다. Copland의 팡파르는 군사
지휘관이나 전투를 제목에 두지 않고 “보통 사람 ”을 전면에 세웠다.

제목의 배경에는 1942년 부통령 Henry A. Wallace가 사용한 “보통 사람의 세기 ”라는 표현이 있다. Library of Congress와 Cincinnati Symphony의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는 Wallace의 연설과 전시 민주주의 담론이 제목을 둘러싼 배경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Copland가 선택한 제목은 전쟁기 의뢰의 애국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 기념의 대상을 특정 영웅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넓힌다.

단악장 진행과 음형

작품은 낮은 타악의 호출로 시작한다. 팀파니, 큰북, 탐탐이 먼저 울리고, 금관이 그 사이에 넓은 음정의 선율을 놓는다. 작품은 한 번의 호출 뒤에 다음 소리가 올 자리를 남기는 넓은 호흡으로 진행된다.

Copland 공식 분석 글은 작품의 중심 재료를 세 개의 짧은 동기로 설명한다. 트럼펫이 제시한 동기는 호른과 트롬본, 튜바의 응답으로 이어지며, 금관군 전체가 같은 재료를 서로 다른 음역에서 반복한다. 타악은 각 응답 사이의 간격을 분명하게 하여, 단악장 안에서도 호출과 응답의 순서가 들리게 한다.

같은 공식 분석은 곡의 대부분이 B♭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D장조 삼화음으로 닫힌다고 설명한다. 종결부의 조성 변화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는 장치가 아니라, 앞에서 반복한 금관 재료를 마지막 화음에
모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짧은 길이 안에서도 시작의 타악 호출, 금관 동기의 반복, 낮은 음역의 응답, 종결 화음이라는 진행을 추적할 수 있다.

초연과 초기 수용

Goossens가 지휘한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는 1943년 3월 12일 이 팡파르를 처음 연주했다. 이 공연은 전쟁기 위촉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 작품은 이후 특정 의식에만 묶이지 않고 독립적인 금관 · 타악 레퍼토리로 연주되었다 . 초연 날짜와 장소, 지휘자는 Cincinnati Symphony의 역사 자료와 Copland

공식 페이지가 함께 확인한다.

1944년 출판은 초연 뒤 작품을 악보로 유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Library of Congress가 보존한 Copland 원고 자료는 작품이 전시의 특정 행사에만 남지 않고 출판물과 공연을 통해 반복해서 사용된 과정을 보여 준다. 이때 독립 팡파르의 짧은 형식과 제목이 결합해, 작품은 전쟁기 프로젝트의 한 항목이면서도 별도의 레퍼토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제 3교향곡 피날레에서의 재사용

Copland는 Symphony No. 3 피날레에서 Fanfare for the Common Man의 핵심 재료를 다시 썼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와 Los Angeles Philharmonic의 해설은 이 재료가 피날레에서 전관현악으로 확장되고
, 독립 팡파르에는 없는 도입과 연결이 추가된다고 설명한다. 교향곡판에서는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와
타악의 원래 색채가 현악과 목관을 포함한 더 넓은 문맥 속에 놓인다.

독립 팡파르가 하나의 호출과 응답을 짧게 제시한다면 , 피날레의 재사용은 교향곡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같은 재료를 되돌려 놓는다. 두 버전은 동일한 음형이 서로 다른 형식적 기능을 맡도록 재구성된 관계로 설명된다.

작품의 공적 의미와 레퍼토리

Copland 공식 해설과 Library of Congress 자료는 제목과 전쟁기 위촉을 시민적 헌사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작품은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와 세 가지 타악기로 편성을 구성하며, 금관의 넓은 음정과 타악 호출, 응답 사이의 침묵이 짧은 시간 안에 공적 선언의 형식을 만든다. 이러한 설명은 특정 감상이나 연주 지시가 아니라, 제목 ·편성 ·초연 프로젝트가 서로 연결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1943년 초연, 1944년 출판, 제 3교향곡 피날레에서의 재사용은 작품의 범위를 세 단계로 보여 준다. 전쟁 중 의뢰를 위해 쓴 독립 소품, 출판으로 유통된 금관 레퍼토리, 전관현악 교향곡의 종결 재료가 차례로 이어진다. 독립 팡파르와 교향곡판은 서로 다른 악보와 기능으로 병존하며,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과 악보 항목으로 제시된다.

주요 자료

Aaron Copland 공식 작품 페이지

Aaron Copland 공식 분석 글

Cincinnati Symphony 역사 자료

Library of Congress Patriotic Melodies 해설

Library of Congress Copland 원고 자료

Boosey & Hawkes 작품 페이지

San Francisco Symphony 프로그램 노트

Aaron Copland 공식 제 3교향곡 페이지

- Boston Symphony Orchestra □ 3□□□ □□
- Los Angeles Philharmonic □ 3□□□ □□